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Parent Care Consciousness with a focus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한은주

강사 최배영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Han Eun Joo

Lecturer : Choi Bea Young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 care consciousness at the viewpoint of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familism, norms of home, relation of their parent.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with 267 male and female who were in the age of 10-50 and residents of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general trends of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variable and parent care consciousness showed relatively high.
- (2)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variables was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 (3) Parent care consciousness was affected by marital status, age, cohabitation status with a grandparent.
- (4) The correlations of parent care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 in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variables.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 전통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관습과 여건하에서는 부모 특히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당연히 자녀의 책임이었고, 특히 장남이 그 책임을 전담하였던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상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서구 가치관과 문화의 유입 등은 현대에 이르러 부모 부양체제에도 다소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노인생활 실태를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은 노인의 11.9%가 독신노인, 29.1%가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부부노인으로,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41.0%, 자녀 동거노인은 53.8%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추세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생을 살아왔던 노인 세대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거와 같은 가정 생활이나 가족부양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노인들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양체제라 사료된다. 특히 공적부양체제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에 의해 부양받고 있고, 노후 생활의 모든 관심과 희망이 그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부양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족부양 상태 속에서 가족구성원들간에 보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부양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가 이론적 틀이 없이 부모에 대한 태도와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살펴보고 있으며(서병숙, 1986; 허훈, 1988; 성규탁, 1989; 고경애, 1990), 이론적 틀을 적용한 연구들도 명백한 일반이론의 언급 없이 한두가지의 변인과 부모부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송현애, 1986; 임춘희, 1987; 김송애, 1990; 장선주,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학의 여러 이론들 중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부모부양의식을 재성립하

는데 목적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그들의 가정 및 사회 환경(가족, 친구, 사회단체, 미디어 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와 규범,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의식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출생 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구조인 가족 속에서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형식을 비롯하여 기초적인 반응양식을 배운다. 부모, 형제와 같이 의미있는 타인과의 1차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과 반응양식을 습득한 개인은 성장하면서 상호작용을 점차로 일반적인 타인에게로까지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가치, 규범,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고 이들을 바탕으로 자기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형성,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신수진, 1993). 그러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부모부양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재된 개인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상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서구 가치관과 문화가 유입된 한국의 현 상황에서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부모부양의식의 개념

개인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해 정신의 내면세계에서 상징적 정의를 내리고, 그 상황에 대한 행동반응을 나타낸다. 즉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의되는 상황에 대한 상징적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징적 정의의 과정이 개인에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가치를 두고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그들의 가정 및 사회 환경(가족, 친구, 사회단체, 미디어 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즉 자기가 속해있는 환경을 정의하고 수용하며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체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인간의 사고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인격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조병은, 1991).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가족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첫째 개인의 특성, 둘째 개인과 가족구성원간(예; 부모)의 1차적인 상호작용 특성, 셋째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간의 상호작용 특성, 넷째 개인과 사회전체(일반적인 타인의 개념)간의 상호작용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인자녀의 의무(Seelbach, 1978; 신수진, 1993에서 재인용)에 관련된 생각이다.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종주(1982)는 성인자녀들이 부모부양의 이유를 그들의 부모이므로, 전통적 규범 내지 관습이므로, 자녀를 양육했으므로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현애(1986)는 자녀로서의 의무감, 어머니와의 갈등이 현재의 부양행동 및 미래의 부양참여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통적 윤리관인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주력하고,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허훈(1988)의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은 자녀가 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아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족강화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우미경(1988)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부모 부양책임의식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미래 부양행동을 위한 계획차원에서 보다는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효의식에 근거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박재간, 1989; 성규탁, 1989).

2.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부모부양의식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의식을 규범적 차원의 의미로 정의하여 개인, 부모, 가정, 사회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특성과 부모부양의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기본개념과 가정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많다 해도 그 대부분이 상호작용 이론을 의식적인 이론접근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었다(조병은, 1990).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입각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부모부양의식을 설명하고, 이 변인들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개인의 특성과 부모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부양의식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부양의식과의 관계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양의식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조명희, 1974; 임장순, 1979; 차용은, 1980; 서병숙, 1986; 송현애, 1986; 임인혜, 1987; 임춘희, 1987; 허훈, 1988; 우미경, 1988; 고경애, 1989; 김송애, 1990; 광필선, 1990; 김수혜, 1993), 이들 연구들은 주로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출생순위, 결혼상태 등을 변수로 선택하고 있다. 서병숙(1986)의 부모 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장자인 경우,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부양의 책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경(1988)의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령을 제외한 성별, 교육정도, 수입, 출생순위, 노인과의 동·별거상황, 결혼만족도에 따라 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 부양의무감, 부양의 어려움 등의 관계를 통해 노부모 부양을 살펴본 김송애(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수입이 많을 경우 부모부양의 의무감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출생순위, 소득, 학력, 종교, 조부모와의 동거여

부가 부모부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개인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부양의식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첫번째 차원으로 부모와의 1차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부모와의 관계라 규정하고자 한다.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를 연구한 송현애(1986)는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애착행동이 많을수록 현재 어머니를 더 많이 부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을 연구한 임춘희(1987)는 의무감보다는 애착과 갈등같은 주관적인 유대관계가 부양의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애착) 및 부정적인 관계(갈등)가 현재의 부양행동 및 미래의 부양참여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사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정도를 조사하여 이러한 요인이 부모부양의식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3) 개인과 가정간의 상호작용: 가정 규범과 부모부양의식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두번째 차원으로서,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규범 중 주로 효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시켰다. 공업화, 도시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효도관이 변화되어가고 또한 노인부양의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경로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표명하기 보다는 사회구조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효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효도, 예절교육이 보편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허훈(1988)의 연구결과와 같이 효에 관련된 가정규범은 그 뿌리가 여전히 깊다고 할 수 있다. 서병숙(1986)은 대학생의 노인관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대학생의 경로의식의 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고 부모부양의 책임의식도 투철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고경미(1987)도 젊은 이들이 효를 행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효의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한규순(1988)의 중학생의 효에 대한 의식연구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효의식이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효의식 상실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현 사회에서 과거의 효의 준거틀이 중점이 될 수 없으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부양을 해야 한다는 가정규범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이 다를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의 흐름을 효와 관련된 가정규범을 통해 살펴보아 이것이 부모부양의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4)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작용: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세번째 차원으로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변인으로 적용시켰다. 옥선화(1989)는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 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지지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왔으나, 물질문명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인 서구의 가치가 유입되어 가족주의 가치의 보편적 수용에 영향을 주고 개인을 비롯한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초래하여 왔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김명자, 1980; 옥선화, 1989; 김송애, 1990; 백미화, 1990; 한은주, 1993)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소득이 많은 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점차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 가족내부지향적이고 가족원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

미화, 1990),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김송애, 19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사회간의 역동적 관계 흐름을 가족주의 가치관의 정도를 통해 살펴봄과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 차원으로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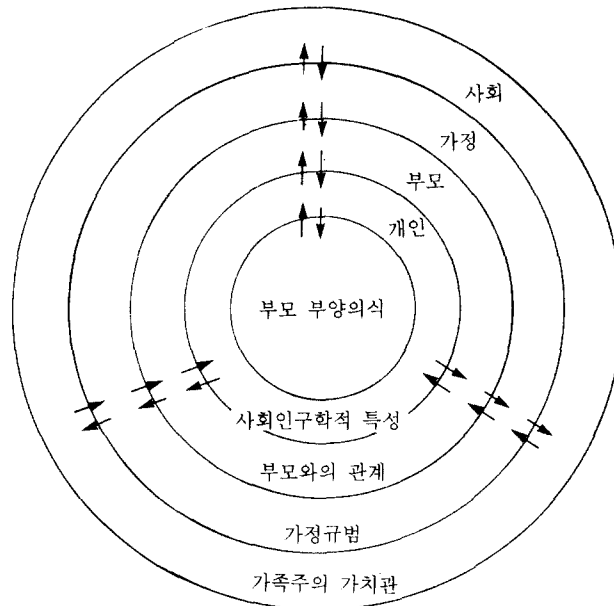
4)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위한 연구의 도식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모 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생존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50대의 남녀로서, 문항 내용의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6년 6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75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67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그림 1> 연구의 도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 분	N(%)	변인	구 분	N(%)
결혼 상태	기혼	139(52.1)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0(7.5)
	미혼	128(47.9)		100-150만원미만	81(30.3)
	계	267(100.0)		150-200만원미만	65(24.3)
		200만원 이상		101(37.8)	
연령	10대	56(21.0)	계	267(100.0)	
	20대	62(23.2)	종교	기독교	91(34.1)
	30대	52(19.5)		천주교	42(15.7)
	40대	46(17.2)		불교	55(20.6)
	50대	51(19.1)		무교	76(28.5)
	계	267(100.0)		기타	3 (1.1)
		계		267(100.0)	
성별	남	130(48.7)	조부모 와의 동거 경험	있다	143(53.6)
	여	137(51.3)		없다	124(46.4)
	계	267(100.0)	계	267(100.0)	
출생 순위	장남(장녀)	119(44.6)	조부모 와의동거 기간	0년	124(46.4)
	외동아들(외동딸)	23(8.6)		1-5년	69(25.8)
	차남이하(차녀이하)	125(46.8)		6-10년	25(9.4)
	계	267(100.0)		11-15년	22(8.2)
		16-20년		16(6.0)	
		20년 이상		11(4.1)	
학력	중졸(재학중)	52(19.5)	계	267(100.0)	
	고졸(재학중)	84(31.5)			
	대졸(재학중)	111(41.6)			
	대학원 이상	20(7.5)			
	계	267(100.0)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9문항,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 35문항(부모와의 관계 10문항, 가정규범 10문항, 가족주의 가치관 15문항), 부모부양의식 변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찬성(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적극 반대(1점)의 범위를 가졌다.

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척도는 임춘희(1987), 유은희(1990), 송현애(1986), 신수진(1993)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10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 중 3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역코딩을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② 가정규범

가정규범 척도는 이길표(1995)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규범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③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는 옥선화(1988), 김은미(1996)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④ 부모부양의식

부모부양의식 척도는 임인혜(1986), 김송애(1990), 신수진(1993)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별 특성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및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들과 부양의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연구문제 1〉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표 2〉

〈표 2〉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

내 용	M	SD
부 모 와 의 관 계	3.53	0.53
가 정 규 범	3.64	0.69
가 족 주 의 가 치 관	3.62	0.55
부 모 부 양 의 식	4.04	0.55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의 〈표 2〉에서와 같다. 전반적으로 중간점인 3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부모부양의식은 평균 4.0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의식적인 면에서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test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상태, 성별,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일수록, 여성이 남성 보다,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규범은 결혼상태,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가정규범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결혼상태, 연령, 출생순위, 학력, 종교,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장남이나 장녀일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많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test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결혼상태,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일수록, 연령이 50대일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많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

변인	구 분	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가치관		
		M	SD	D	M	SD	D	M	SD	D
결혼 상태	기혼	3.60	0.49		3.90	0.63		3.77	0.55	
	미혼	3.44	0.56		3.35	0.65		3.44	0.51	
	t값		2.40*			7.01***			5.10***	
연령	10대	3.45	0.66		3.22	0.78	D	3.46	0.59	B
	20대	3.49	0.47		3.47	0.52	C	3.40	0.44	B
	30대	3.54	0.52		3.74	0.64	B	3.63	0.55	B
	40대	3.48	0.52		3.84	0.57	AB	3.72	0.51	A
	50대	3.66	0.43		4.02	0.66	A	3.93	0.53	A
	F값		1.29			13.04***			8.71***	
성별	남	3.46	0.54		3.61	0.73		3.65	0.56	
	여	3.59	0.52		3.66	0.65		3.58	0.54	
	t값		-2.05*			-0.54			0.97	
출생 순위	장남(장녀)	3.55	0.53		3.59	0.78		3.70	0.54	A
	외동아들(외동딸)	3.50	0.44		3.63	0.84		3.49	0.66	B
	차남이하(차녀이하)	3.50	0.55		3.69	0.56		3.56	0.53	AB
	F값		0.18			0.59			2.60*	
학력	중졸(재학중)	3.63	0.61		3.47	0.68		3.69	0.58	A
	고졸(재학중)	3.47	0.52		3.65	0.79		3.73	0.57	A
	대졸(재학중)	3.52	0.50		3.68	0.61		3.48	0.51	B
	대학원 이상	3.55	0.52		3.78	0.68		3.69	0.52	A
	F값		1.04			1.46			4.15**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41	0.56		3.64	0.80		3.70	0.55	
	100-150만원 미만	3.55	0.49		3.63	0.65		3.63	0.56	
	150-200만원 미만	3.56	0.58		3.72	0.77		3.53	0.54	
	200만원 이상	3.50	0.52		3.60	0.66				
	F값		0.52			0.44			1.63	
종교	기독교	3.52	0.53		3.57	0.66		3.62	0.53	B
	천주교	3.60	0.49		3.76	0.68		3.56	0.51	B
	불교	3.52	0.60		3.76	0.78		3.77	0.59	A
	무교	3.51	0.50		3.56	0.66		3.53	0.57	B
	기타	3.20	0.26		3.90	0.95		3.44	0.44	B
	F값		0.50			1.42			1.73*	
조부모 와의 동거 기간	0년	3.47	0.54	B	3.57	0.68	B	3.56	0.53	B
	1-5년	3.50	0.50	B	3.59	0.61	B	3.49	0.51	B
	6-10년	3.50	0.53	B	3.64	0.82	B	3.80	0.72	A
	11-15년	3.60	0.49	AB	3.74	0.81	AB	3.84	0.41	A
	16-20년	3.73	0.50	AB	4.14	0.62	A	3.90	0.57	A
	20년 이상	3.90	0.60	A	3.71	0.62	AB	3.70	0.55	A
	F값		2.03*			2.14*			3.24**	

* P < .05 ** P < .01 *** P < .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부양의식

변인	구 분	부모부양의식			변인	구 분	부모부양의식		
		M	SD	D			M	SD	D
결혼 여부	기혼	4.10	0.55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4.02	0.60	
	미혼	3.96	0.55			100-150만원미만	4.11	0.52	
	t값		2.15*			150-200만원미만	4.00	0.59	
F값				200만원 이상		4.00	0.55		
연령	10대	3.97	0.60	B	종교	F값		0.74	
	20대	3.95	0.51	B		기독교	4.01	0.55	
	30대	3.97	0.56	B		천주교	4.04	0.45	
	40대	4.07	0.50	B		불교	4.12	0.63	
	50대	4.24	0.56	A		무교	4.00	0.55	
	F값			2.51*	기타	4.04	0.25		
성별	남	4.04	0.53		F값		0.45		
	여	4.03	0.58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있다	4.07	0.58	
	t값		0.24			없다	3.99	0.52	
출생 순위	장남(장녀)	4.10	0.60		t값		1.25		
	외동아들(외동딸)	4.04	0.59		조부모와의 동거기간	0년	3.99	0.52	B
	차남이하(차녀이하)	3.97	0.49			1-5년	3.95	0.60	B
	F값		1.52			6-10년	4.14	0.55	AB
				11-15년		4.11	0.57	AB	
학력	중졸(재학중)	4.11	0.59		조부모와의 동거기간	16-20년	4.40	0.41	A
	고졸(재학중)	4.08	0.56			20년 이상	4.15	0.57	AB
	대졸(재학중)	3.95	0.52			F값		2.31*	
	대학원 이상	4.10	0.56						
	F값		1.49						

* P < .05 ** P < .01 *** P < .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5〉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과 부모부양의식의 관계

	1	2	3	4
1. 부모와의 관계	1.0000			
2. 가정규범	.3257**	1.0000		
3. 가족주의 가치관	.4385**	.4598**	1.0000	
4. 부모부양의식	.4520**	.3460**	.6123**	1.0000

** P < .001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표 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부양의식은 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의 관계(P<.001)가 친

밀할수록, 가정규범(P<.001)의 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P<.001)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과 부모부양의식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보통 개인은 1차적으로 부모, 형제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반응양식을 습득하고 그 뒤 성장하면서 상호작용을 점차 일반적인 타인으로까지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가치, 규범,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형성,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가정하에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의 특성과 부모부양의식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개인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개인과 가정간의 상호작용으로 가정규범이 부모부양의식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넷째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모 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생존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50대의 남녀로서, 총 300부를 배부하여 267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네 변인들 모두 중간점인 3점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중 부모부양의식은 4.04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 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는 기혼일수록, 여성이 남성 보다,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규범은 기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기혼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장남이나 장녀일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혼일수록, 연령이 50대일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이 많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들과 부모부양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가정규범 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부모부양의식을 연구한 결과 첫째, 한 개인이 부모와 갖는 친밀한 성격의 관계를 비롯하여 그가 가정 및 사회 환경과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 등은 부모부양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환경이 될 수 있는 제 변인들과 부모부양의식을 연관지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개인의 위치 -> 상호작용의 속성 -> 부모 부양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개인의 결혼상태,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기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가정규범, 가족주의 가치관 그리고 부모부양의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틀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 특성 변인들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여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속성을 밝힐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둘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변인과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든 변인이 중간점인 3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모자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효과 관련된 가정규범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부양의식이 4.04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결과를 나타낸 것은 자녀가 부모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제공해 줄수 있는 부양의 1 담당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 하겠다. 이에 아직까지 공적 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의한 부양이 앞으로 그 중요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므로 가족구성원간에 보다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사회교육과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물질적·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 기풍의 유지를 위하여 올바른 효의 가정규범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차후 과

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몇가지 연구의 제언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명백하게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러한 변인설정에 있어 본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변인 설정에 대한 검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다른 이론들과 쉽게 연관되어 있거나 통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로지 한 이론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 이론만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앞으로 연관되는 이론들을 함께 적용하여 이론의 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광숙,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연구-서울시 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 김미경, 고교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서울시 인문계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3) 김영미, 청소년이 지각한 모-조부, 조모관계와 노인부양의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 4) 김송애,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5) 백미화, 가족주의 가치와 가족결속력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6)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7) 신수진, 성인초기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사회교환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8) 우미경,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9) 이길표,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1994.
- 10) 임지희,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1) 임춘희, 분가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2) 장선주,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아들 동거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3) 최동희,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부양행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4) 한은주,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회지 14(1), 95-116, 1994.
- 15) 허 훈,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6) Ada, C. M. Caring for frail elderly parent: A comparison of adult sons and daughters, *The Gerontologist* 35(1), 86-93, 1995.
- 17) Vira, R. K., & Maxine, P. A. Filial expectations, association, and helping as a function of number of children among older rural-transitional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39(4), 1984.